

중국지질대학 강성학원 우호교류협약 협약식 답사

저는 한국의 우송정보대학 총장 김 선 종입니다.

존경하는 중국지질대학 강성학원 장남홍 이사장님, 왕전홍 원장님, 정신문 당서기님, 이봉상 부원장님, 소학민 국제교육원장님, 그리고 교수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저희 일행을 초청하고 환대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중국지질대학 강성학원은 중국이 자랑하는 자연명소이면서 역사문화의 도시인 무한시 하강구 청룡산록에 위치하고 있어서 환경이 매우 수려한 점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용적인 학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서 졸업생 90% 이상이 취업되어 학생 신뢰도가 높은 상위 10대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또한 독립학원 종합 실력 20위로 인정받는 등 유명 대학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문대학과 우호교류를 위한 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송정보대학은 한국에서는 과학기술의 중심지이며 살기 좋은 도시로 알려진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개교 50주년이 된 반세기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32개 학과에 5천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송정보대학은 중국에 학이치용(學以致用)이란 말이 있듯이 ‘실용교육(實用教育)에 충실한 명품대학(名品大學)’을 추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대학도 한국 정부로부터 교육품질이 우수한 명품대학으로 인증되어 국가의 특별 재정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송정보대학은 산업체와 공동으로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는 현장실습을 이수하도록 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송정보대학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데도 주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재학 중 외국의 자매 대학에서 연수 및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그리고 외국의 기업체에서 인턴십을 거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특성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협약을 계기로 중국의 명문대학인 중국지질대학 강성학원과 한국의 우송정보대학이 교육 및 연구에서 서로 협력한다면,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중국지질대학과 우송정보대학이 상호 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거듭 저희 일행을 초청하고 환대해주신 장남홍 이사장님, 왕전홍 원장님, 정신문 당서기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14. 2. 21)